

發 刊 辭

國際經濟的으로 대단히 어려운 狀況에 直面하고 있는 이 때에 먼저 우리 韓國環境法學會와 會員 여러분의 健勝을 祝願합니다.

經濟와 環境은 相互補完的이라는 事實의 認識이 普遍化되어 있는 지금, 우리는 우리의 環境保全手段에 대한 再檢討가 필요한 시점에서 있으며, 우리 學會와 會員 여러분은 經濟의 健全한 성장을 法制的 側面에서 어떻게 支援할 것인가 하는 時角에서 知慧를 모아 政策에 반영해야 할 所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發刊되는 「環境法研究」誌는 21世紀 資源節約의 時代에 대비하여, 總體的으로 廢棄物 管理法·政策의 문제점과 改善方向을 중심으로 가졌던 우리 法學會의 97년도 국제세미나 發表論文을 비롯하여 會員 여러분의 玉稿를 실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本誌의 내용이 충실해 가고, 各界에서 본지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음은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玉稿를 제공해 주신 여러분에게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本誌의 發刊에까지 支援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李尙圭 명예회장님, 金元主 前 會長님을 비롯한 顧問님, 그리고 朴秀赫 總務理事님과 洪準亨 學術理事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韓國環境法學會의 모든 會員이 남달리 사랑을 쏟아주시는 本誌가 더욱 알찬 내용으로 성장하여 國家環境保存에 이바지하고 會員 상호간의 對話의 場으로서 그 役割을 다하기를 빌면서 發刊의 말씀을 줄입니다.

1997. 12.

會長 金亨徹